

# 차부품클러스터·지하철 연장안 수용

광주시-군발위 '5+2' 갈등 일단락

市, 조만간 선도산업계획서 제출키로

정부가 추진 중인 '5+2광역경제권 개발 구상에 광주시가 요청한 선도사업이 대부분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정부간 광역경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군발위)는 '5+2 광역경제권'의 권역을 현재 대로 유지하되, 광역경제권 사업에 광주 R&D특구 지정, 광주·전남 광역 생활철도 건설과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선도산업에 친환경(첨

단) 부품산업을 배정키로 합의했다.

<본보 2월 9일자 1면 보도>

이에 대해 박광태 광주시장은 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관련,

"호남권 자체의 수정·보완요구에 대한 정부 회신을 검토한 결과 광주시가 요구해온 내용이 대부분 수용됨에 따라 조만간 지식경제부에 선도산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다만 5+3 권역조정

문제는 국회에 입법 발의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해 10월부터 선도산업 기본계획을 보이콧 사태까지 야기하며 계속돼 왔던 5+2 광역경제권 갈등은 조만간 기본 계획서 제출과 함께 봉합될 전망이다.

군발위는 당초 5+2 호남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새만금 조기개발과 여수엑스포 기반시설 확충, 서남해안 다도해 개발, 광주 외곽순환도로 구축,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5개 프로젝트를 제시했으나 이번 광주시의 요구를 받아 들어 광역경제권 사업에 광주지하철을 화순과 나주까지 연장하

는 광주·전남 광역생활철도 건설과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는 당초 신재생에너지와 광소재(광기반 용합·LED조명 산업)가 제시됐으나 이를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광소재·친환경자동차부품)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광주시가 즐기자계 요구해 온 '광주 R&D 특구 지정 및 육성'은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중장기프로젝트로 대구와 연계추진하되, 여건이 잘 갖춰진 광주부터 우선 추진하고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도 이와 연계해 관련 인프라를 지원키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부적격자 영구임대 입주 방치

## 광주도시공사 직원 4명 '징계'

### 감사원 적발

영구임대주택 및 산업단지 용역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광주도시공사와 승진인사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하고 산업단지 용역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광주도시공사 직원 4명에 대해 도시공사 층에 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승진인사 업무 처리를 부적절하

게 처리한 전남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은 2007년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19명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다.

또 계약업무 담당직원 2명은 2007년 평동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폐기물처리 용역계약과 관련, 특정업체의 단독입찰이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문을 작성해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를 받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 승진 인사과정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기간에 미달한 4명에 대해 민간기업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승진시키는 등 승진인사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전남개발공사는 행정 3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최저 연수기간 28개월에 미달한 행정 4급 A씨를 민간기업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승진시키는 등 연수기간이 부족한 4명을 승진 대상자에 포함 승진 시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日만정

- 김종우



한걸음도 못 움직일 사람도 있다

### 신임 감사위원에

### 배국환·은진수씨 내정



임명장착했다.

행사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배 차관은 강진 출신으로 옛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기획·예산업무를 두루 거친 경제관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배국환 제2차관 후임으로 이용철 기재부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 월급 174만원 미만

### 4인 가구 '세금면제'

김 활식 감사 위원장은 9일 신임 감사 위원으로 배국환(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낸 은진수 변호사를

올해 근로자 1인 가구는 월 79만 원, 4인 가구(다자녀 가구)는 174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 된다.

지난해에 비해 1인 가구의 간이세액표상 면세점(세액이 0인 구간)은

7만 5천 원 가량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세부담이 높아졌다.

반면 4인 가구는 면세점이 12만 원 가량 상향조정돼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간이세액표상 독신가구는 월급 79만 5천 원, 연봉 954만 원 미만이면 소득세 부담이 없다. 이는 지난해 면세점(월 87만 원)과 비교하면 월 7만 5천 원, 연봉으로는 90만 원 가량 내려간 수준이다.

/연합뉴스

# 正祖 독살說, 사실 아니다

'정적' 심환지는 국정 동반자 ... 정조 비밀편지 299통 발견



노론 벽파에 의해 독살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조선 제22대 왕 정조(正祖·사진·재위기 간 1776~1800)의 의문은 독살이 아니라 병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벽파는 정조의 최대 정적이기는커녕 정조는 벽파의 영수 심환지와 자주 서신을 교환하며 세부적인 국정 현안을 일일이 지시,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정조가 그의 최대 정적으로 알려진 노론 벽파의 거두 심환지(沈煥之·1730~1802)

에게 보낸 비밀편지가 무더기로 발굴되면서 밝혀졌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과 한국고전번역원 번역대학원은 9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조가 예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노론 벽파의 거두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첩(御札帖) 299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소장해오다 공개된 이 어찰첩은 탈초(脫草·정자체로 풀어쓰기)와 번역을 거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조 재위 말년인 1796년 8월 20일부터 1800년 6월 15일 까지 작성되었으며, 그 전부가 정조의 친필로 심환지에게만 보낸 보물급 문화재로 드러났다.

이번 어찰첩이 밭길로써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정조시대 정국 동향은 물론이고 정조 자신의 성격이나 정국 구상과 그 추진 방식 등이 상당 부분 베일을 벗겨 됐다.

무엇보다 심환지가 정조와는 날카롭게 대립했으며 심지어 그가 정조를 독살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낭설'로 판명났으며, 정조가 편지를 통한 '막후정치'에 능수능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 주저앉은 소, 도축 전면 금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저앉는 소' 기립불능 소(소디우너)를 도축장 밖에서 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저앉는 소가 불법 유통된 것과 관련해 축산물가공 처리법을 개정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부상이나 난산, 산육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카膻이 부족해져 생기는 질병), 급성 고장증(가스로 인한 복부 팬만) 등 4개 질병으로 주저앉는 소의 경우 수의사의 입회하에 도축장이 아닌 농장 등에서 도살할 수 있다. 도축장에 가기 전에 소가 죽을 것 같다면 긴급 도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축장 외 도축을 금지해 도축장에 오기 전에 죽은 소는 도

죽을 애에 못한다.

장기적으로는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애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해 도축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럴 경우 농가들이 주저앉는 소를 정부가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 등을 들여 농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소젖소에 위조가 어려운 새 이력주적 귀표를 붙이는 작업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새 이력주적 귀표는 쇠고기 이력주적제에 따라 당초 오는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밸런타인데이 선물

### "초콜릿보다 현금"

이번 밸런타인데이에 남성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초콜릿이 아니라 현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결혼정보업체 드유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20세 이상 미혼남성 256명을 대상으로 밸런타인 데이 선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돈을 받고 싶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7%인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여행' 33명(13%), '지갑' 30명(12%), '패션소품' 29명(11%), '향수' 24명(9%), 'IT제품' 22명(9%)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 앞서가는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었다.=

# 7.9 금 공무원 對備 전문

9급 문제풀이반 4주 완성

국가+지방직

(영어) 10급 기능직

9급 문제풀이반 4주 완성

개강

매월 1회 15회 주·미국인 모집

(현재에약수증)

소방직

· 사장과 대모집 예정

· 단독한 이정호 교수

· 서울 300, 부산 82, 대구 94, 인천 277, 광주 92

· 대전 105, 울산 66, 경기 185, 경원 160, 충북 162

· 충남 198, 전북 204, 전북 309, 경북 214, 경남 316

www.mdgosi.co.kr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5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

•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 광주 96.7점)

"2009년 9월 20일 시험"

주택관리사 大개강 2월 2일

개강 2월 2일